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 「임금근로자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

반정호 · 안미보*

I.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 및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산업을 기준으로 2006년 현재 32.8%(비농전산업 기준, 28.0%)로 매우 높고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비임금근로 부문이 효율적·합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금재호 외, 2002),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외환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자영업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signal)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동안 임금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비임금근로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러한 증가가 근로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기인한 결과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할 겨를 없이 최근 이어진 경기부진은 다시 이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비임금 부문에 대한 일련의 문제의식과 함께 최근 통계청은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비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근무기간, 근로장소, 사업자금의 조달과 사회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비임금근로의 지속여부와 관련된 질문(총

* 반정호=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jhban@kli.re.kr).

안미보=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miboahn@kli.re.kr).

10문항)을 하고 있어 비임금 부문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비임금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정보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과거 직업이력이나 임금근로로의 이행에 대한 정보 등이 누락되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비임금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보며, 비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및 근로환경을 파악한다. 아울러 비임금근로자의 이탈과 그 사유, 그리고 향후 비임금근로의 지속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비임금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양상을 예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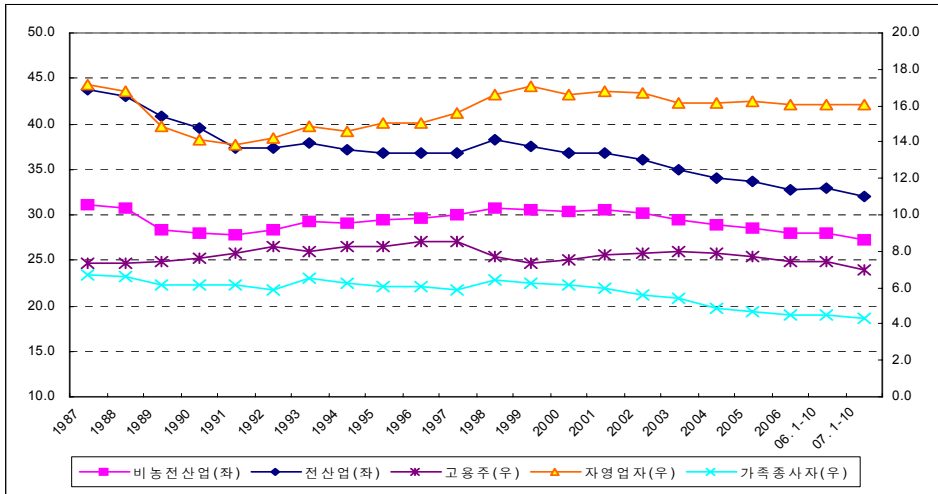
II. 비임금근로자의 추세변화와 노동시장 특성

1. 비임금근로자의 추세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전산업 기준 전체 취업자의 4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외환위기 동안에 다시 그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38%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 33%선까지 낮아졌다. 비임금 부문의 종사상 지위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고용주는 1987년부터 1997년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8% 중반까지 비중이 상승하다가 외환위기를 지난 10년 동안에는 7% 중반대로 하락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시기에 증가하는 추세로,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0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증가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략 20년 동안의 비임금 부문의 고용패턴을 살펴보면 외환위기라는 변수가 고용주 부문에서의 노동력 유출효과를,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부문에서는 노동력 유입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며, 최근 경기부진은 비임금 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력 유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 부문의 국제적인 고용비중 추세를 살펴보면, 자영업주(고용주+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군에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최근 그 비중이 빠

[그림 1] 비임금근로자의 추세변화(1987~2007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르게 감소하여 2006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9.9%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자영업주 비중이 15%대에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파악된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는 전산업 기준으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에서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임금 부문의 고용비중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 참조).

[그림 2]는 2005년 기준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을 비교해 놓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멕시코와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비임금 부문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하고 동시에 가족종사자의 비중도 높은 국가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이나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가족종사자 비중이 1%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비임금 부문 중에서 가족종사자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임금 부문의 소득

여기에서는 주로 통계청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자 가구의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해 본다. <표 2>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가구의 분위별 실질소득(2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 기준)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근로자 가구의 경우,

1) 가치분소득(경상소득-(직접세+사회보장부담금))을 기준으로 분위기를 계산한 것이며,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것이다.

〈표 1〉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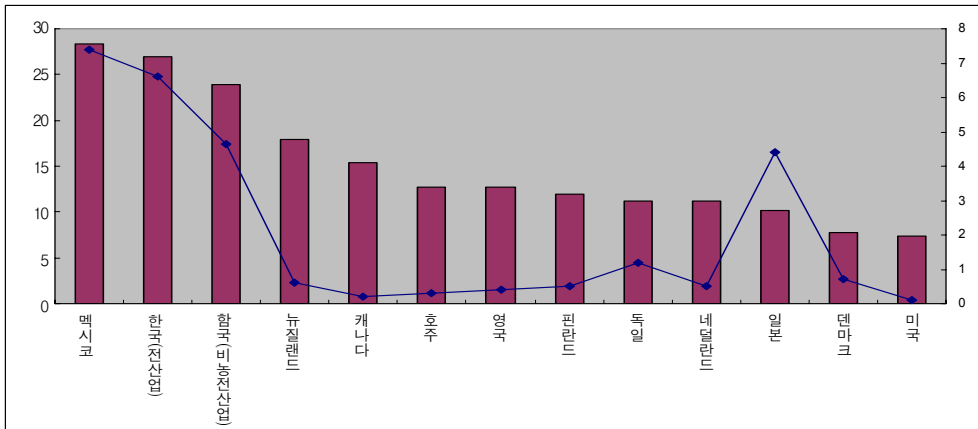
(단위 : %)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주	임금근로자	84.3	84.6	85.9	86.2	86.8	86.5	86.8	87.0	87.5
	자영업주	14.7	14.5	13.3	13.2	13.4	13.1	12.9	12.7	12.2
	가족종사자	0.9	0.9	0.8	0.5	0.5	0.4	0.4	0.3	0.3
캐나다	임금근로자	85.1	84.2	83.8	84.8	84.9	84.7	84.6	84.5	84.8
	자영업주	14.4	15.4	15.9	15.0	14.9	15.1	15.2	15.4	15.0
	가족종사자	0.5	0.4	0.3	0.2	0.2	0.2	0.2	0.2	0.2
덴마크	임금근로자	-	90.5	91.4	91.2	91.0	91.2	91.4	91.4	91.2
	자영업주	-	8.3	7.7	8.0	8.2	8.1	7.8	7.8	8.2
	가족종사자	-	1.2	0.9	0.8	0.8	0.7	0.8	0.7	0.6
핀란드	임금근로자	83.8	83.3	85.6	86.3	86.4	86.4	86.5	86.7	86.3
	자영업주	13.9	14.1	12.9	12.3	12.2	12.3	12.1	12.0	12.2
	가족종사자	1.2	1.2	0.6	0.5	0.5	0.4	0.5	0.5	0.5
독일	임금근로자	90.5	89.4	89.2	88.9	88.9	88.6	88.1	87.7	87.9
	자영업주	8.1	9.3	10.0	9.9	10.0	10.4	10.8	11.2	11.1
	가족종사자	1.4	1.3	0.9	1.2	1.1	1.1	1.1	1.2	1.0
일본	임금근로자	78.5	81.5	83.1	83.7	84.2	84.5	84.6	84.8	85.7
	자영업주	13.5	12.1	11.4	10.8	10.6	10.4	10.4	10.2	9.9
	가족종사자	7.7	6.1	5.3	5.1	4.8	4.7	4.6	4.4	3.9
한국 (전산업)	임금근로자	62.7	63.2	63.2	63.3	64.0	65.0	66.0	66.4	67.2
	자영업주	26.7	27.3	27.7	28.1	27.9	27.3	27.1	27	26.5
	가족종사자	10.6	9.5	9.1	8.6	8.1	7.7	6.9	6.6	6.3
한국 (비농 전산업)	임금근로자	72.1	70.4	69.7	69.5	69.8	70.5	71.0	71.4	72.0
	자영업주	21.7	23.5	24.2	24.6	24.6	24.1	24.1	24.0	23.5
	가족종사자	6.1	6.1	6.1	6.0	5.6	5.4	4.9	4.7	4.5
멕시코	임금근로자	55.3	58.4	63.9	63.4	62.9	63.1	63.2	64.3	65.4
	자영업주	31.5	29.8	27.8	28.5	28.6	28.9	28.9	28.3	27.6
	가족종사자	13.0	11.7	8.4	8.1	8.4	7.9	7.9	7.4	7.0
네덜란드	임금근로자	-	88.1	88.4	89.1	88.9	88.7	88.4	87.1	-
	자영업주	-	10.7	10.8	10.4	10.5	10.7	11.1	11.2	-
	가족종사자	-	1.3	0.8	0.6	0.6	0.5	0.5	0.5	-
뉴질랜드	임금근로자	79.1	78.8	79.0	80.1	80.7	80.7	80.7	81.4	82.2
	자영업주	19.2	19.9	19.9	19.0	18.5	18.6	18.7	17.9	16.7
	가족종사자	1.3	1.1	0.8	0.9	0.8	0.7	0.6	0.6	0.9
영국	임금근로자	-	86.5	88.3	88.4	88.3	87.2	86.9	87.0	-
	자영업주	-	12.9	11.3	11.2	11.4	12.5	12.7	12.7	-
	가족종사자	-	0.5	0.4	0.3	0.3	0.3	0.4	0.4	-
미국	임금근로자	91.0	91.5	92.6	92.6	92.8	92.4	92.4	92.5	92.6
	자영업주	8.7	8.4	7.3	7.3	7.1	7.5	7.5	7.4	7.3
	가족종사자	0.3	0.1	0.1	0.1	0.1	0.1	0.1	0.1	0.1

주 : 외국은 ILO(www.laborsta.ilo.org)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음.

[그림 2]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2005년)

(단위 : %)



[표 2] 자영자 가구의 실질소득(시장소득)의 변화(2003~2006년)

(단위 : 천 원/월평균, %)

2인 이상 가구			연 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2003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근로자	전국	전 체	1,561	1,616	1,641	1,703	3.50	1.58	3.76	2.20
		1분위	440	448	441	454	1.90	-1.60	3.00	0.81
		2분위	941	959	964	985	1.91	0.60	2.14	1.16
		3분위	1,276	1,321	1,344	1,372	3.52	1.70	2.15	1.83
		4분위	1,707	1,769	1,788	1,849	3.65	1.06	3.41	2.02
	5분위	2,809	2,898	2,933	3,025	3.16	1.22	3.15	1.87	
	도시	전 체	1,590	1,643	1,663	1,724	3.33	1.20	3.67	2.04
		1분위	632	631	636	673	-0.17	0.72	5.89	1.58
		2분위	1,080	1,103	1,113	1,150	2.11	0.97	3.26	1.58
		3분위	1,413	1,462	1,488	1,541	3.47	1.75	3.55	2.18
4분위		1,843	1,922	1,943	2,034	4.25	1.08	4.69	2.49	
5분위	2,981	3,097	3,134	3,221	3.91	1.19	2.78	1.96		
자영자	전국	전 체	1,459	1,479	1,499	1,532	1.34	1.36	2.23	1.23
		1분위	574	550	545	552	-4.21	-0.88	1.29	-0.97
		2분위	978	995	1,012	1,020	1.65	1.77	0.81	1.06
		3분위	1,297	1,333	1,353	1,367	2.77	1.49	1.03	1.32
		4분위	1,700	1,740	1,764	1,786	2.33	1.38	1.24	1.23
	5분위	2,738	2,775	2,819	2,923	1.36	1.60	3.69	1.65	
	도시	전 체	1,494	1,509	1,532	1,570	1.05	1.50	2.47	1.25
		1분위	612	594	592	598	-3.03	-0.41	1.12	-0.59
		2분위	1,013	1,033	1,041	1,054	1.90	0.82	1.19	0.97
		3분위	1,330	1,365	1,381	1,398	2.67	1.14	1.26	1.26
4분위		1,729	1,761	1,788	1,826	1.80	1.55	2.11	1.36	
5분위	2,781	2,793	2,858	2,972	0.44	2.30	4.02	1.68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2007. 7.

실질소득은 2003년 월평균 1,561천 원에서 2006년 1,703천 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2.2%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에서도 연평균 2%의 소득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영자 가구는 전국 자영자 가구에서 실질소득 증가율이 1.2%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분위별로 살펴보면, 특히 1분위 자영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2004년과 2005년에 두 해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저소득 자영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하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기 저소득 자영업 부문의 노동시장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은 근로자 가구와 자영자 가구의 5분위 점유율과 분위배율, 지니계수 등을 통해 각 부문별 분배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다. 먼저 근로자 가구의 분위배율은 2004년에 소폭 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근로자 가구의 분배양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영자 가구는 전국 자영자 가구의 경우 2003년 4.87에서 2006년 5.20으로 증가하였고, 도시 자영자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4.78에서 5.10으로 증가해 분배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2003년에 비해 2006년 1분위 분위점유율이 근로자 가구에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자 가구의 그것은 오히려 감소해 저소득 자영자 가구의 소득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전국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295에서 시작해서 2006년 0.291까지 하락하고 있고, 도시 근로자 가구도 같은 기간 0.290에서 0.289로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 가구는 전국가구의 경우 2003년 0.300에서 2006년 0.306까지 증가하고 도시 자영자 가구는 0.297에서 0.303까지 증가하는 근로자 가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분석기간인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불평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자영자 가구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의 비임금 부문의 노동시장 성과가 열악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와 같은 요소가 비임금근로자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3.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과 유지

비임금근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통해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전 직장의 경험여부를 가지고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²⁾

먼저, 비임금근로 부가조사가 실시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비임금근로

〈표 3〉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점유율·분위배율·지니계수

2인 이상 가구		전 국				도 시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근로자	1분위	7.84	7.66	7.77	7.98	8.03	7.81	7.89	8.04
	2분위	13.60	13.52	13.52	13.57	13.71	13.60	13.59	13.58
	3분위	17.84	17.90	17.95	17.93	17.86	17.90	18.01	17.95
	4분위	23.25	23.44	23.28	23.42	23.17	23.42	23.32	23.50
	5분위	37.47	37.48	37.48	37.09	37.22	37.27	37.19	36.93
	분위배율	4.78	4.90	4.82	4.65	4.63	4.78	4.71	4.59
	지니계수	0.295	0.297	0.296	0.291	0.290	0.294	0.292	0.289
자영자	1분위	7.76	7.40	7.36	7.32	7.89	7.59	7.53	7.43
	2분위	13.31	13.47	13.47	13.34	13.45	13.66	13.57	13.42
	3분위	17.75	18.02	18.07	17.88	17.73	18.05	17.99	17.87
	4분위	23.37	23.55	23.46	23.38	23.23	23.44	23.33	23.39
	5분위	37.81	37.55	37.65	38.08	37.70	37.26	37.58	37.89
	분위배율	4.87	5.07	5.12	5.20	4.78	4.91	4.99	5.10
	지니계수	0.300	0.301	0.302	0.306	0.297	0.296	0.299	0.303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2007. 7.

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한 자의 규모는 659천 명이며, 남성은 215천 명, 여성은 444천 명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근로자의 46.8%에 해당하는 308천 명이 개인과 가족관련 사유로, 25.5%는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비임금근로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이탈 사유를 종사상 지위별로 세분해서 보면, 특히 고용주의 경우 사업경영 악화가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자영자(25.1%)나 무급가족종사자(20.8%)에서보다 그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개인과 가족관련 사유에서는 자영자(49.7%)와 무급가족종사자(45.2%)가 고용주(38.6%)보다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 대체로 고용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비임금근로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또한 이탈 사유는 성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고용주의 경우에는 57.7%가 사업경영 악화를 비경활로의 이탈 사유로 꼽은 반면, 여성 고용주의 경우에는 48.2%가 개인과 가족관련, 20.5%는 육아가사를 이탈의 이유로 꼽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과 관련된 사유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임금근로나 비임금근로를 막론하고 가족관련 요인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본 조사의 29번 문항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의 이전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표와 그림을 작성했다. 단, “1년 이상”이라고 답한 퇴출자에 대해서는 종사상 지위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장에서는 1년 미만의 퇴출자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표 4〉 지난 1년간 비임금근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자의 이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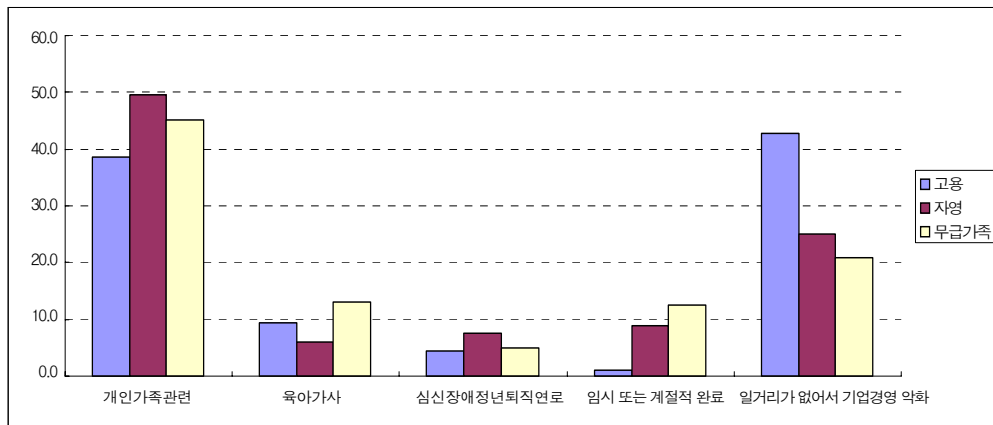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개인가족 관련	육아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 연로	임시 또는 계절적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경영악화	기타	전 체
전체	고용	29 (38.6)	7 (9.4)	3 (4.5)	1 (1.0)	32 (42.9)	3 (3.5)	74 (100.0)
	자영	170 (49.7)	20 (5.9)	26 (7.6)	30 (8.8)	86 (25.1)	10 (2.9)	343 (100.0)
	무급가족 전체	109 (45.2)	31 (13.0)	12 (5.1)	30 (12.4)	50 (20.8)	8 (3.5)	241 (100.0)
	전체	308 (46.8)	58 (8.9)	42 (6.3)	61 (9.3)	168 (25.5)	21 (3.2)	659 (100.0)
남성	고용	12 (30.4)	0 (0.0)	3 (6.3)	1 (1.9)	23 (57.7)	1 (3.7)	40 (100.0)
	자영	61 (46.3)	0 (0.0)	15 (11.3)	10 (7.2)	42 (31.5)	5 (3.7)	133 (100.0)
	무급가족	29 (68.0)	0 (0.0)	4 (10.4)	3 (6.5)	5 (12.7)	1 (2.5)	42 (100.0)
	전체	102 (47.6)	0 (0.0)	22 (10.2)	13 (6.1)	70 (32.7)	7 (3.4)	215 (100.0)
여성	고용	17 (48.2)	7 (20.5)	1 (2.4)	0 (0.0)	9 (25.6)	1 (3.4)	34 (100.0)
	자영	109 (51.8)	20 (9.6)	11 (5.3)	21 (9.8)	44 (21.1)	5 (2.4)	210 (100.0)
	무급가족	81 (40.4)	31 (15.7)	8 (3.9)	27 (13.7)	45 (22.6)	7 (3.7)	199 (100.0)
	전체	206 (46.4)	58 (13.2)	20 (4.5)	48 (10.8)	98 (22.1)	14 (3.1)	444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원자료.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근로 노동시장 이탈 사유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원자료.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에서 지난 1년 이내에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자들의 현재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비임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임금근로자 659천 명 중에서 349천 명(53.0%)이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137천 명 (20.8%)은 “그냥 쉬”이라고 응답해 비임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많은 근로자들이 유희

3) 경제활동인구조사(본조사)의 7번 문항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습니까?”를 통해 1년 이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비임금근로자의 현재 활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지난 1년간 비임금근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자의 비경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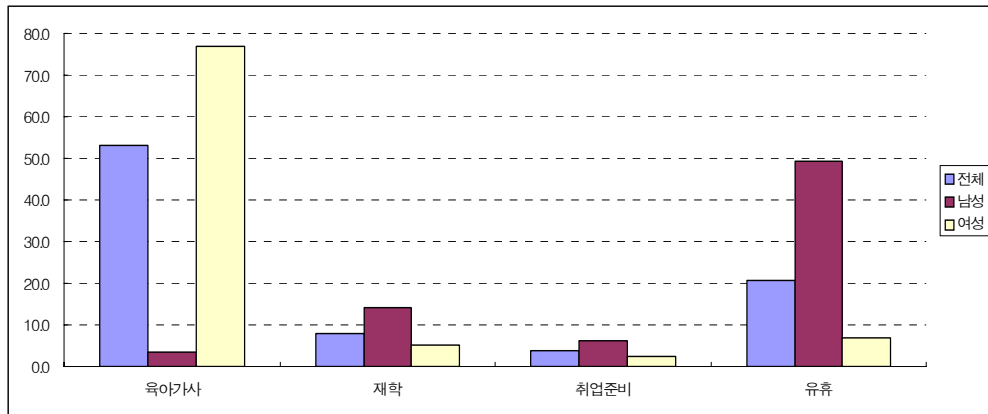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육아가사	재학	취업준비	유휴	기타	전 체
전체	고용	31 (41.6)	1 (1.2)	2 (2.8)	33 (43.7)	8 (10.6)	74 (100.0)
	자영	162 (47.2)	33 (9.7)	13 (3.6)	77 (22.5)	58 (17.0)	343 (100.0)
	무급가족	156 (64.8)	19 (7.8)	10 (4.1)	28 (11.5)	29 (11.8)	241 (100.0)
	전체	349 (53.0)	53 (8.1)	24 (3.7)	137 (20.8)	95 (14.4)	659 (100.0)
남성	고용	2 (3.9)	1 (2.3)	2 (5.2)	30 (73.8)	6 (14.8)	40 (100.0)
	자영	5 (3.9)	15 (11.5)	7 (5.1)	63 (47.3)	43 (32.2)	133 (100.0)
	무급가족	1 (2.0)	14 (34.1)	4 (10.5)	14 (32.4)	9 (21.0)	42 (100.0)
	전체	8 (3.5)	31 (14.2)	13 (6.2)	106 (49.3)	58 (26.8)	215 (100.0)
여성	고용	29 (85.5)	0 (0.0)	0 (0.0)	3 (8.7)	2 (5.8)	34 (100.0)
	자영	157 (74.6)	18 (8.6)	6 (2.7)	14 (6.8)	15 (7.3)	210 (100.0)
	무급가족	156 (78.1)	5 (2.3)	5 (2.7)	14 (7.0)	20 (9.9)	199 (100.0)
	전체	342 (77.0)	23 (5.1)	11 (2.5)	31 (7.0)	37 (8.4)	444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원자료.

〈그림 4〉 성별로 본 비임금근로 이탈자의 현재 활동상태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원자료.

인력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49.3%가 유휴인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임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남성의 유휴화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남성 고용주의 경우에는 유휴인력이 73.8%에 달해 남성고용주가 사업을 그만둔 후에 별다른 사유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여기에서 또 하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여성 비임금근로 이탈자 중에서 이탈 사유로 육아가사를 꼽은 사람은 13.2%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의 현재 활동상태로 살펴본 비경제활동 사유에서는 77.0%가 육아가사라고 응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

〈표 6〉 비임금근로 이탈자의 이전 직종 분포

(단위: 천 명, %)

	전체 이탈자				이탈 사유가 '일거리가없어서/경영악화'인 경우			
	고용	자영	무급	전체	고용	자영	무급	전체
의원관리자	12 (16.6)	0 (0.1)	0 (0.0)	13 (1.9)	5 (16.6)	0 (0.0)	0 (0.0)	5 (3.2)
전문가	4 (4.8)	11 (3.1)	1 (0.2)	15 (2.3)	1 (3.7)	3 (3.5)	0 (0.0)	4 (2.5)
기술공준전문가	6 (8.7)	74 (21.7)	11 (4.4)	91 (13.9)	2 (7.0)	17 (19.5)	2 (3.7)	21 (12.4)
사무종사자	5 (6.3)	1 (0.4)	26 (10.7)	32 (4.8)	1 (4.7)	0 (0.6)	7 (13.2)	9 (5.1)
서비스종사자	29 (39.0)	83 (24.1)	38 (15.8)	150 (22.7)	13 (39.4)	28 (33.1)	12 (23.2)	53 (31.3)
판매종사자	11 (14.5)	68 (19.8)	41 (17.1)	120 (18.2)	5 (14.2)	23 (27.1)	12 (23.6)	40 (23.6)
농림어업숙련	2 (2.5)	71 (20.8)	86 (35.6)	159 (24.2)	0 (0.0)	3 (3.6)	8 (14.9)	11 (6.3)
기능원	5 (6.6)	13 (3.8)	9 (3.9)	27 (4.2)	4 (13.0)	7 (7.8)	5 (10.3)	16 (9.5)
장치기계조작조립	0 (0.0)	12 (3.6)	4 (1.6)	16 (2.5)	0 (0.0)	3 (3.8)	1 (2.6)	5 (2.7)
단순노무	1 (1.1)	8 (2.4)	26 (10.7)	35 (5.3)	0 (1.4)	1 (0.9)	4 (8.7)	6 (3.3)
전 체	74 (100.0)	343 (100.0)	241 (100.0)	659 (100.0)	32 (100.0)	86 (100.0)	50 (100.0)	168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원자료.

경제활동 여성에게 있어서 “육아가사”라는 활동상태는 “유휴”의 의미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육아를 포함한 가정의 일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비임금근로에서 이탈한 자들의 이전 사업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종과 작업장 규모를 살펴보았다(참조: 산업변수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우선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 이탈한 자의 24.2%가 농림어업숙련직으로, 22.7%가 서비스종사자로, 18.2%가 판매종사자로 근무를 경험했다. 이를 다시 종사상 지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서비스종사자의 비중(39.0%)이 자영자(24.1%)나 무급가족종사자(15.8%)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종사자는 농림어업숙련직에 35.6%가 분포해 있어 주로 계절성에 의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농수산업의 무급가족종사자가 이 그룹에 다수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임금 노동시장의 이탈 사유가 사업경영 악화라고 응답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종을 살펴보면, 서비스(31.3%)와 판매직종(23.6%)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나 판매직종의 비임금근로자들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고용주에서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전 작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78%가 1~4인, 5~9인(14%), 10~29인(8%)으로 소규모사업장의 비임금근로 소멸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근로자의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39.9%를 차지했고, 고졸자가 41.1%를, 대졸 이상이 15.7%를

〈표 7〉 비임금근로 이탈자의 학력별·연령별 인적특성

(단위: 천 명, %)

	전체 이탈자				이탈 사유가 '일거리가없어서/경영악화'인 경우			
	고용	자영	무급	전체	고용	자영	무급	전체
중졸 이하	14(18.8)	141(41.1)	108(44.8)	263(39.9)	2(5.3)	22(25.6)	15(29.5)	39(22.9)
고졸	37(50.4)	132(38.5)	101(41.9)	271(41.1)	19(60.7)	41(47.3)	27(54.5)	88(52.0)
초대졸	5(6.7)	9(2.6)	8(3.2)	22(3.3)	3(8.6)	3(3.6)	1(2.7)	7(4.3)
대졸 이상	18(24.0)	61(17.8)	24(10.1)	103(15.7)	8(25.4)	20(23.4)	7(13.4)	35(20.8)
전 체	74(100.0)	343(100.0)	241(100.0)	659(100.0)	32(100.0)	86(100.0)	50(100.0)	168(100.0)
청년층	5(7.2)	50(14.5)	38(15.6)	93(14.1)	2(6.6)	3(3.0)	6(11.1)	10(6.1)
30대	13(17.0)	52(15.3)	40(16.5)	105(15.9)	4(12.4)	20(23.5)	10(19.5)	34(20.2)
40대	24(32.2)	68(19.9)	51(20.9)	143(21.7)	12(39.1)	24(28.4)	18(35.2)	55(32.5)
50대	16(22.0)	56(16.5)	41(17.1)	114(17.3)	8(25.9)	23(26.7)	11(21.7)	42(25.1)
60세 이상	16(21.6)	116(33.9)	72(29.9)	204(31.0)	5(16.1)	16(18.4)	6(12.5)	27(16.2)
전 체	74(100.0)	343(100.0)	241(100.0)	659(100.0)	32(100.0)	86(100.0)	50(100.0)	168(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원자료.

차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자(41.1%)와 가족종사자(44.8%)의 중졸 이하 저학력자 비중이 고용주(1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별로는 전체 비임금근로 이탈자 중 31.0%가 60세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40대(21.7%)와 50대(17.3%)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임금 노동시장 이탈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다시 세분하면, 고용주에서는 40대가 32.2%로 가장 많았고,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체 비임금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와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이탈 사유가 사업경영 악화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32.5%)을 차지하는데, 이는 40대의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이 경기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를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현상은 비임금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지금까지는 비임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현재 비임금근로자이지만 비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동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본다.⁴⁾ 먼저, 조사에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87.1%(6,598천 명)가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5.6%(425천 명)는 현재 일을 그만둘 계획이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비임금 노동시장을 이탈할 계획이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27.1%가 서비스종사자이고 25.6%가 판매종사자이며, 이 비중은 비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우(각각 15.9%, 19.2%)보다 더 높아 이들 업종에서의 노동시장 이탈이 높다는

4)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2007년 8월)의 77번 문항 “현재 사업체(일자리)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토대로 비임금 노동시장의 이탈 혹은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표 8〉 현재 비임금 노동시장의 유지와 이탈에 대한 계획

(단위: 천 명, %)

	유 지				이 탈			
	고용	자영	무급가족	전 체	고용	자영	무급가족	전 체
의원관리자	212(15.4)	6(0.1)	1(0.1)	219(3.3)	15(20.1)	0(0.0)	0(0.0)	15(3.6)
전문가	133(9.6)	108(2.7)	12(0.9)	253(3.8)	4(4.5)	7(2.5)	1(1.1)	11(2.6)
기술공 준전문가	139(10.1)	357(9.0)	19(1.5)	515(7.8)	8(10.6)	38(14.3)	2(2.4)	48(11.4)
사무종사자	46(3.4)	26(0.7)	100(7.9)	173(2.6)	4(4.9)	4(1.5)	9(10.7)	16(3.9)
서비스 종사자	265(19.2)	560(14.2)	224(17.6)	1048(15.9)	23(29.2)	65(24.2)	28(34.6)	115(27.1)
판매종사자	234(17.0)	773(19.6)	259(20.4)	1267(19.2)	13(16.4)	74(27.6)	22(27.5)	109(25.6)
농림어업 숙련	45(3.3)	1059(26.8)	512(40.2)	1616(24.5)	1(1.2)	27(10.0)	14(17.8)	42(9.9)
기능원	205(14.9)	338(8.6)	55(4.3)	598(9.1)	6(7.9)	22(8.2)	1(0.8)	29(6.8)
장치기계 조작조립	80(5.8)	631(16.0)	31(2.4)	741(11.2)	2(2.0)	23(8.6)	1(1.6)	26(6.1)
단순노무	18(1.3)	88(2.2)	61(4.8)	168(2.5)	2(3.2)	8(3.1)	3(3.3)	13(3.2)
전 체	1379(100.0)	3946(100.0)	1274(100.0)	6598(100.0)	77(100.0)	268(100.0)	80(100.0)	425(100.0)

주: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서 무응답자가 있어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수와는 맞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2008년 8월) 원자료.

앞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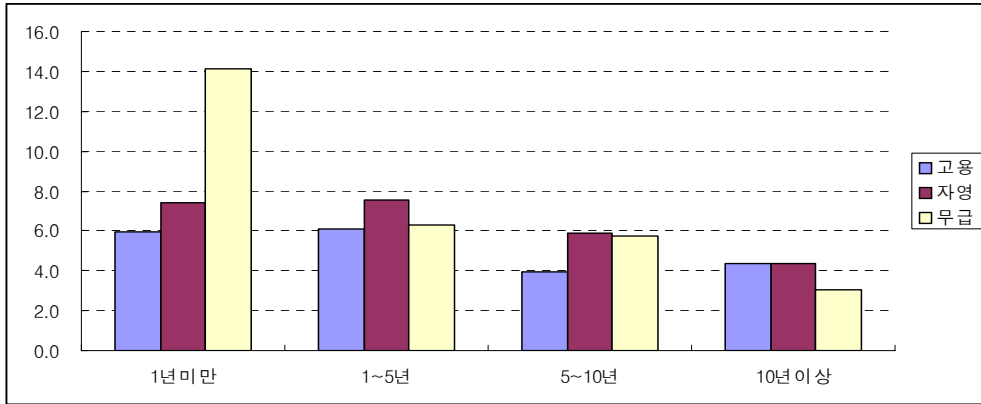
[그림 5]에서는 근속연수별로 이동계획이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고용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비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동할 계획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종사자에서는 1년 미만의 신규 진입자의 경우, 이동계획이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비임금근로를 그만둘 계획을 가진 근로자의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전망이 없거나(사양산업), 사업이 부진하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고용주에서 그 비중이 더 높았다(그림 6 참조).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사유,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이것은 앞서 비임금근로에서 이탈한 자들의 사유에서 고용주의 경우 사업경영 악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개인적인 사유가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분석결과와도 비교적 일치한다.

근속연수별로 고용주, 자영자의 이동 사유를 [그림 7]과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근속연수·종사상 지위별 이탈예정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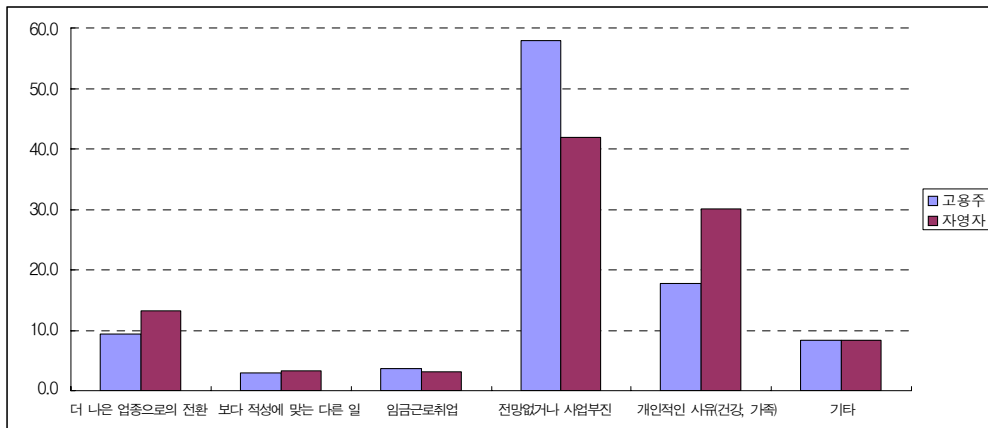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2007년 8월) 원자료.

[그림 6] 비임금근로 이탈예정인 자들의 사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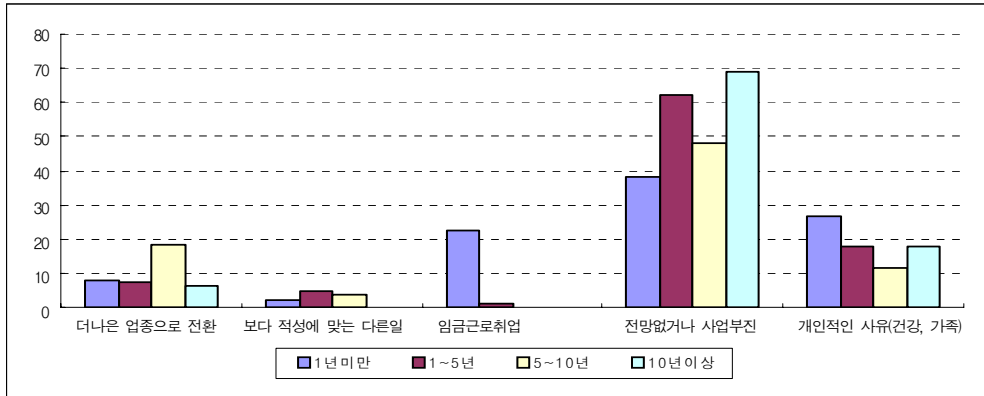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2007년 8월)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2007년 8월) 원자료.

먼저 고용주에서 이동을 하려는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자들은 ‘전망없음·사업부진’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나 ‘임금근로로의 취업’이라는 개인 관련 요인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비임금근로에 진입한 1년 미만의 신규진입자들은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간 대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근로로의 대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특징은 5~10년의 근속기간을 가진 고용주들 중에서 더 나은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중이 다른 근속기간에 속한 고용주들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그림 7] 근속연수별 이탈예정 근로자의 사유(고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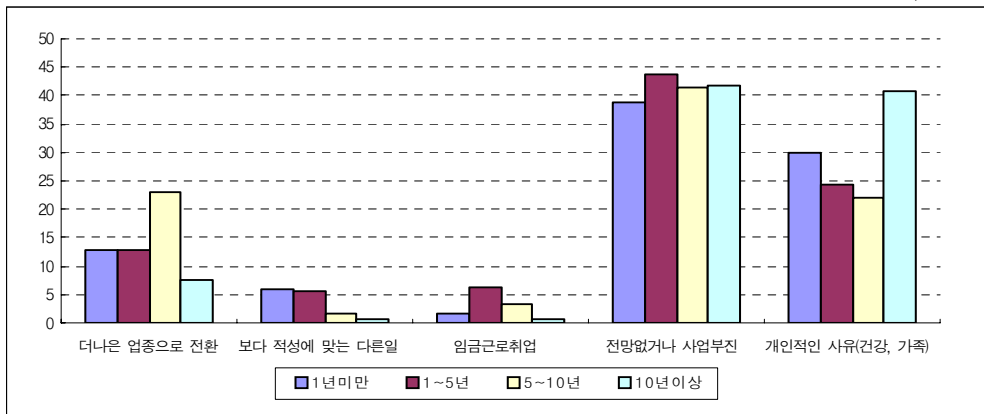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2007년 8월) 원자료.

[그림 8] 근속연수별 이탈예정 근로자의 사유(자영자)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2007년 8월) 원자료.

8]의 자영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5~10년 정도의 장기간 축적된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업종으로 전환의 계기를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나 경제전반의 여건과 관련된 변수들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Ⅲ. 맺음말

본고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임금 부문의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고 비임금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행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과거 20년 동안 비임금 부문 전반적인 고용패턴을 살펴보면, 외환위기라는 주요 요인으로 고용주 부문에서의 유출효과를,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부문에서는 노동력 유입효과를 발생시켰고, 최근에 이어지는 경기부진은 비임금 노동시장 전반의 노동력 유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 「가계조사」를 통해 비임금 부문의 실질소득의 변화와 소득불평등을 파악해 보면, 임금근로자와는 대조적으로 실질 소득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임금 부문의 열악한 노동시장 성과는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임금 부문의 노동시장 이탈행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이 비임금근로에서 이탈하는 주된 사유는 경기적·미시적 측면의 사업경영 악화이며, 개인적인 사유나 육아가사 등은 특히 여성 비임금근로 이탈의 경우에서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비임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자의 현재 상태를 분석해 보면 이들의 유희율이 높고, 특히 남성 고용주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규모의 서비스, 판매종사 직종에서의 비임금 노동시장 이탈이 높았으며, 이탈자는 저학력자와 40대,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8월 비임금근로를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에서 비임금근로에서 이동할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반면, 부가가치 비중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 부문의 저생산성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김주훈 외, 2006). 특히 최근에 이어진 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 경향은 영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KLI**

<참고문헌>

-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2),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주훈·안상훈·이재형(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부표 1〉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추이(1987~2007년)

(단위 : %)

	전산업	비농전산업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987	43.8	31.2	7.3	17.2	6.7
1988	43.0	30.7	7.4	16.8	6.6
1989	40.8	28.4	7.4	14.9	6.1
1990	39.5	28.0	7.6	14.2	6.2
1991	37.3	27.9	7.9	13.8	6.1
1992	37.3	28.4	8.2	14.2	5.9
1993	37.9	29.4	8.0	14.8	6.5
1994	37.1	29.1	8.2	14.6	6.3
1995	36.8	29.4	8.3	15.0	6.1
1996	36.7	29.6	8.5	15.0	6.1
1997	36.8	30.0	8.5	15.6	5.9
1998	38.3	30.8	7.8	16.6	6.4
1999	37.6	30.6	7.3	17.1	6.2
2000	36.8	30.3	7.5	16.6	6.1
2001	36.7	30.5	7.8	16.8	6.0
2002	36.0	30.2	7.9	16.7	5.6
2003	34.9	29.5	7.9	16.1	5.4
2004	34.0	29.0	7.9	16.2	4.9
2005	33.6	28.6	7.7	16.2	4.7
2006	32.8	28.0	7.4	16.1	4.5
06. 1~10	33.0	28.0	7.5	16.1	4.5
07. 1~10	32.0	27.3	7.0	16.0	4.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부표 2〉 비임금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단위 : %)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주	임금근로자	84.3	83.5	84.6	84.9	85.4	85.5	85.9	86.2	86.8	86.5	86.8	87.0	87.5
	자영업주	14.7	15.4	14.5	14.3	13.9	13.7	13.3	13.2	13.4	13.1	12.9	12.7	12.2
	가족종사자	0.9	1.1	0.9	0.9	0.7	0.8	0.8	0.5	0.5	0.4	0.4	0.3	0.3
캐나다	임금근로자	85.1	84.2	84.2	82.9	82.9	83.0	83.8	84.8	84.9	84.7	84.6	84.5	84.8
	자영업주	14.4	15.2	15.4	16.7	16.7	16.7	15.9	15.0	14.9	15.1	15.2	15.4	15.0
	가족종사자	0.5	0.6	0.4	0.5	0.4	0.3	0.3	0.2	0.2	0.2	0.2	0.2	0.2
덴마크	임금근로자			90.5	91.1	90.8		91.4	91.2	91.0	91.2	91.4	91.4	91.2
	자영업주			8.3	7.9	8.2		7.7	8.0	8.2	8.1	7.8	7.8	8.2
	가족종사자			1.2	1.0	1.0		0.9	0.8	0.8	0.7	0.8	0.7	0.6
핀란드	임금근로자	83.8	83.0	83.3	84.1	84.8	85.2	85.6	86.3	86.4	86.4	86.5	86.7	86.3
	자영업주	13.9	14.4	14.1	13.8	13.4	13.2	12.9	12.3	12.2	12.3	12.1	12.0	12.2
	가족종사자	1.2	1.3	1.2	0.8	0.7	0.7	0.6	0.5	0.5	0.4	0.5	0.5	0.5
독일	임금근로자	90.5	89.9	89.4	89.1	88.9	89.3	89.2	88.9	88.9	88.6	88.1	87.7	87.9
	자영업주	8.1	8.7	9.3	9.9	10.0	9.9	10.0	9.9	10.0	10.4	10.8	11.2	11.1
	가족종사자	1.4	1.3	1.3	1.0	1.1	0.9	0.9	1.2	1.1	1.1	1.1	1.2	1.0
일본	임금근로자	78.5	80.7	81.5	82.2	82.4	82.5	83.1	83.7	84.2	84.5	84.6	84.8	85.7
	자영업주	13.5	12.6	12.1	11.8	11.7	11.7	11.4	10.8	10.6	10.4	10.4	10.2	9.9
	가족종사자	7.7	6.5	6.1	5.7	5.6	5.5	5.3	5.1	4.8	4.7	4.6	4.4	3.9
멕시코	임금근로자	55.3	55.1	58.4	58.8	61.5	62.2	63.9	63.4	62.9	63.1	63.2	64.3	65.4
	자영업주	31.5	30.9	29.8	29.2	28.4	28.3	27.8	28.5	28.6	28.9	28.9	28.3	27.6
	가족종사자	13.0	13.9	11.7	11.9	10.1	9.4	8.4	8.1	8.4	7.9	7.9	7.4	7.0
네덜란드	임금근로자			88.1	87.9	88.7		88.4	89.1	88.9	88.7	88.4	87.1	
	자영업주			10.7	11.0	10.5		10.8	10.4	10.5	10.7	11.1	11.2	
	가족종사자			1.3	1.1	0.9		0.8	0.6	0.6	0.5	0.5	0.5	
뉴질랜드	임금근로자	79.1	78.4	78.8	79.9	79.6	78.8	79.0	80.1	80.7	80.7	80.7	81.4	82.2
	자영업주	19.2	20.1	19.9	19.1	19.5	20.2	19.9	19.0	18.5	18.6	18.7	17.9	16.7
	가족종사자	1.3	1.1	1.1	0.9	0.9	0.9	0.8	0.9	0.8	0.7	0.6	0.6	0.9
영국	임금근로자		86.9	86.5	87.1	87.5	88.0	88.3	88.4	88.3	87.2	86.9	87.0	
	자영업주		12.5	12.9	12.5	12.1	11.7	11.3	11.2	11.4	12.5	12.7	12.7	
	가족종사자		0.6	0.5	0.4	0.4	0.4	0.4	0.3	0.3	0.3	0.4	0.4	
미국	임금근로자	91.0	91.2	91.5	91.8	92.1	92.3	92.6	92.6	92.8	92.4	92.4	92.5	92.6
	자영업주	8.7	8.5	8.4	8.1	7.8	7.6	7.3	7.3	7.1	7.5	7.5	7.4	7.3
	가족종사자	0.3	0.3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